



7월 구역예배 순서지

 **예담교회**



신앙고백 | 사도신경 | 다같이

찬송 | 191장 · 내가 매일 기쁘게 | 다같이

기도 | 구역원 중

성경말씀 | 사도행전 3장 1-10절 | 다같이

“주목하여 보니”

1오후 세 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,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,2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
들이 떠메고 왔다.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,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'아름
다운 문'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.3그는,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, 구걸을
하였다.4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, 그에게 말하였다. "우리를 보시오!"5그 못 걷는 사람은
무엇을 얻으려니 하고, 두 사람을 뵈히 쳐다보았다.6베드로가 말하기를 "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, 내게 있는
것을 그대에게 주니,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[일어나] 걸으시오" 하고,7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
켰다.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,8벌떡 일어나서 걸었다. 그는 걷기도 하고, 뛰기도 하며, 하나님
을 찬양하면서,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.9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
것을 보고,10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,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
놀랐으며, 이상하게 여겼다.

말씀살피기 | 다같이

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. 능력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
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사도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.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
처럼 일했다는 의미입니다.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, 사
도들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손을 받아 일으켜 주었습니다.

질문1)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?(2절)

'아름다운 문'이라는 성전 문

질문2)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?(6절)

**"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,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,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
[일어나] 걸으시오"**

말씀묵상 | 인도자

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눈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. 주님의 눈을 가지고
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, 그들에게 주님
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.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, 주의 사랑이 퍼지게 하
십니다. 이것이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.

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, 그는 “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” 사람이었습니다.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서서 자신의 원하는 곳을 향해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였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앞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두 사도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. 4절 말씀에 “눈여겨 보고”는 헬라어로 ‘아테니조’인데, ‘집중해서 보다, 주시하다, 관찰하다’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관찰했고,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.

우리들은 “눈여겨 바라보았던”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. 사도들 역시 그전에는 그 앞을 오가면서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. 그저 익숙한 풍경화 속에 인물처럼 감정 없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,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았습니다. 그를 주님의 눈,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. 그 후에 사도들은 자신 안에 계시는 분,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.

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.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과 힘든 사람,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

말씀적용 | 다같이

1. 최근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(관심을 갖고 있거나 집중하고 있는 것)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2. 내가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?

나눔 | 다같이

1.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
2.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

합심기도 | 다같이

마침 | 주기도문 | 다같이